

끊임없는 혁신이 성공을 만든다

벤처신화의 두 주역 구글과 인텔

성공한 벤처신화의 주역인 구글과 인텔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새 기술과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구글과 인텔의 사례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벤처기업'만이 '승리하는 세계경영'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뛰어난 벤처기업은 창업 이후 지속적인 급성장을 통해 업계 정상에 오르는 데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마침내는 그 분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서 세계경제계를 호령하곤 한다. 그러나 그보다 뛰어난 기업은 성공을 '수성(守成)'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끌고서 나가고 인류의 번영과 사회공헌까지 해내는 '창의적 역량'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듯 '수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장에서 뒤쳐지고 발전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며 퇴보하게 마련이다. 반면, 특화된 전문분야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신기술을 터트리며 세상을 바꾸는 대변혁의 선두에 서왔다. 특히 벤처 성공신화의 주역인 기업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과단성고 적극성에 매달리는 한편, 쉽 없는 노력으로 인류의 삶과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인 성과를 도출하곤 한다. 대표적인 기업의 사례로 구글과 인텔을 꼽을 수 있다.

구글의 새로운 기술혁신 찾기 Google

1998년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설립한 '구글'은 인터넷 검색 엔진의 하나로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강의 검색엔진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각종 웹 문서 검색 외, '구글 이미지 검색', '구글 뉴스 한국', '구글 뉴스그룹', '구글 웹 디렉토리', '구글 비디오' 등의 주요 검색 서비스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이처럼 세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구글은 2004년 8월에 85달러의 공모가격으로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지 3년여 만인 지난 11월6일에는 사상최고치인 747.24달러까지 오르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특히, 구글은 검색엔진이라는 사업영역에 만족하지 않고 새 영역을 꾸준히 개척해내고 있다. 한 예로, 구글은 최근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인텔, 쉘컴을 포함한 33개 업체와 '구글폰' 플랫폼 개발을 위한 '개방형 휴대폰 동맹(Open Handset Alliance)'인 '안드로이드(Android)'를 체결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지난 2005년 사들

인 실리콘 밸리 소재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업체 이름이다. 구글은 이 업체와 OS와 사용자 환경(UI),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동맹군에는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만 HTC', '모토로라'가 포함됐고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로는 '도이체텔 레콤 T-모바일', '스프린트 넥스텔', '일본 NTT도코모'와 'KDDI', '중국 차이나모바일', 반도체 제조사로는 '인텔'과 '브로드컴',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SiRF 테크놀로지 홀딩스',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 '엔비디아', '시냅틱스' 등이 참여했다.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를 서비스하고 있는 '이베이'도 함께 했다.

구글의 '구글폰(G-Pon)'을 위한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에 세계를 뒤흔드는 IT강자들이 총집결한 셈이다. 구글은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는 내년 하반기에 '구글폰'이 대중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업체들이 공개된 소스코드에 기반을 두어 각각의 입맛에 맞는 '구글폰'을 출시하게 되면 세계 이동통신시장은 거대한 폭풍 속에서 대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구글은 '구글폰'을 통해 검색 기능과 함께 메일서비스 'Gmail', '구글 토크', '지도 서비스'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타겟 광고를 제공하는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일단 서비스 업체와 휴대폰 제조업체간 폐쇄적인 동맹이 지배했던 시장은 일대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활발해지고 정체 상태를 맞고 있던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기에 모두가 '구글 폰'의 등장을 반기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셈이다.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 앞장서는 인텔

구글처럼 기술혁신에 앞장서는 것은 인텔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업체인 인텔 역시 지난 11월초에 새로운 반도체 역사의 개막을 선언했다. 인텔은 11월12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이산화규소) 대신 '하프늄(halfnium)'이란 신소재로 고유전율(high-k) 절연막을 만든 트랜지스터 디자인의 45나노미터(nm) 프로세서 16중(코드명 펜린)을 공식 출시했다.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로서 인텔은 게이트 전극에 이산화규소 대신 하프늄을 사용하면서 속도는 20%가량 높이고, 전력 소모는 80% 이상 줄일 수 있게 됐다. 인텔은 이 기술을 통해 올해 출시할 45나노미터 디자인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1960년대 이래 인텔 등 반도체 업체들은 게이트에 이산화규소를 사

용해 왔으나, 누전으로 인한 전력 소모가 항상 문제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이번 제품 출시로 반도체 구동 속도는 20% 높아지고, 전력 소모는 30% 가량 줄어들게 되면서 서버 컴퓨터나 하이엔드(High-end) 게임 PC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반도체업체들이 지난 1960년대 이래 사용돼 왔던 이산화규소 대신 '하프늄 다이옥사이드', '지르코늄 다이옥사이드' 등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물질로 대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텔의 이같은 선도적 움직임으로 조만간 실리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반도체 시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인텔의 공동 창업자 고든 무어는 "40년 만에 트랜지스터 기술에 있어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고, 폴 오텔리니 인텔 최고경영자는 "이번 개발은 인텔이 업계를 주도하고 이것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기술 개발에 따른 신제품이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기술을 개척하는 혁신은 성공의 지름길

경영석학인 피터 드러커는 저서 <혁신과 기업가정신(1985)>에서 "혁신을 성공하려면 위험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범위를 줄여야 하고 혁신에 성공한 이들은 규칙적으로 그 기회를 분석하고 포착해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새로운 현실(1989)>에서 "혁신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기존의 조직이 몰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제대로 경영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신사업이 실패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혁신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중국의 병법가 손자는 "이길 수 없는 자는 지키고, 이길 수 있는 자는 공격한다. 지키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이고 공격하는 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잘 지키는 자는 깊은 땅 속에 숨듯이 병력을 은폐하고, 공격을 잘하는 자는 깊은 하늘에서 움직이듯이 공격을 퍼붓는다. 그러므로 능히 자기의 군대를 보존하고서도 온존하게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不可勝者, 守也; 可勝者, 攻也. 守則不足, 攻則有余. 善守者, 藏于九地之下; 善攻者, 動于九天之上. 故能自保而全勝也)"라고 승리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렇듯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새 기술과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구글과 인텔의 사례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는 '벤처기업'만이 '승리하는 세계경영'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국내 벤처기업들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